



보도	배포 시	배포	2026.3.27.(금)		
담당부서	서민금융보호국 검사1팀 검사2팀	책임자	국 장	송경용	(02-3145-8410)
		담당자	팀 장	김재흥 최종담	(02-3145-8250) (02-3145-8255)

**'코인 보내면 빚 깎아드립니다'**  
- **대부업체를 사칭한 사기 메일 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 소비자경보 2026 - 10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여 상당수의 개인(신용) 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커는 **침해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대부업체 명의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채무면제를 미끼로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에 포함된 지갑주소를 활용하여 거래하거나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세요.

####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 ①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면제를 빙자하여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절대 거래에 응하지 마세요!**
- ② 대부업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채무조정 권유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경우 함부로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마세요!**
- ③ 대부업체를 빙자한 **피싱 이메일**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 I.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커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통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여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하는 침해사고(해킹)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커는 침해사고 사실 보상과 관련하여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대부업체 명의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채무면제를 미끼로 한 해커의 의도대로 코인 거래, URL 클릭, 첨부 파일 다운로드 등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합니다.

---

## II. 주요 수법 및 특징

---

- ① **(침해사고의 보상에 따른 채무면제 강조)** 해커는 실제로 발생한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채무면제를 실시한다며 유인
  - \* 해당 대부업체는 홈페이지 등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게재 중
- ② **(채무면제를 위한 코인 전송을 요구)** 해커는 코인을 먼저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코인을 전송할 지갑 주소를 기재
  - 특히, 코인을 전송한 후 대부업체에 방문하면 대부계약서 등을 수정할 수 있다고 유인함으로써 소비자 및 업체의 추가 피해 우려
- ③ **(실제 대부업체의 명의로 이메일 발송)** 해커는 대부업체 실제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로 피싱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

< 해커의 피싱 이메일 내용 >

해킹과 관련하여 채무 면제 ☆

2026-03-26 목요일 11:30

보낸 사람

감사합니다. 00000대부 입니다.

먼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어 즉시 대응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채무 면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신 고객님은 1,000테더를 송금 시 면제해 드립니다.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신 고객님은 2,000테더를 송금 시 면제해 드립니다.

아래에 회사의 테더지갑주소를 보내드립니다.

TKZc            0a5ff1            ?Rk  
4Zu            1QM

많은 고객분들이 문의와 관련하여 송금 후 회사에 방문하시어 계약서를 수정 및 완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000대부            대표 올림

00000대부(주)

주소:

대표이사

T:

M:

E-mail:

Homepage:

### I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면제를 빙자하여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절대 거래에 응하지 마세요!**

- 대부업체에서는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하여 코인 전송 등을 요구하지 않음을 명심
  - 이와 같은 이메일을 받은 경우 해당 이메일에 절대로 회신하지 말고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② 대부업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채무조정 권유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경우 함부로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마세요!**

- 이메일에 포함된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앱 설치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

\*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 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 등

- 만약 악성앱이 이미 설치되었다면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

### ③ 채무면제를 빙자한 피싱 이메일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채무면제를 빙자한 피싱 이메일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 (☎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112)에 신고

\*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민원·신고→민원신청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

○ 신속한 제보·신고를 통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명심

## IV.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고객피해 접수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정보유출 내역 및 회사측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고객정보 유출 원인 등이 명확히 파악되는 즉시 회사가 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 해킹 발생 회사들은 홈페이지 공시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유의사항과 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부업권에서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 대부업체의 해킹 등 피해 발생 여부 및 보안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수준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